

# NHK(일본방송협회) 텔레비전 교육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

노마 히데키 · 김진아

(동경외국어대학 · 메이지가쿠인대학)

Hideki Noma · Jina Kim. 2006. The Televised “Korean Course” Program on the Japanese Public Broadcasting Station NHK.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7-2: 95 - 13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elevision “Hangul Course” program which was broadcast on the Japanese public broadcasting station NHK (Nippon Hoosoo Kyookai or 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from April 2005-Mar 2006. The contents to be included and how they should be present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in the future are also discussed.

NHK’s “Hangul Course” began in 1984 and was updated during this period by lecturer KIM Jina and supervisor NOMA Hideki, with the intention of:

- (1) putting stress o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tself,
  - (2) teaching Korean from a contrastive linguistic point of view, focusing on various differences in expressions, verbal conjugation systems, and in discourse structures in Korean and Japanese,
  - (3) incorporating the fruits of studies on discourse, such as discourse markers, the politeness markers -yo/-iyo, speech level shifts, addressing and hailing, chengca panung palhwa or backchannel expressions, fillers, and turn-taking,
  - (4) having serial “mini” dramas which are made for learning not only language but also culture,
  - (5) and utilizing visual constituents such as animation or computer graphics.
-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Meiji Gakuin University)

주제어: 방송 교육(broadcast education), 텔레비전 교육(television education), 담화(discourse),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

## 1. 들어가기

본고의 목적은 일본 공공방송인 NHK (Nippon Hoosoo Kyookai 일본방송 협회) 텔레비전의 2005년도 “한글 강좌”의 이념과 경험을 한국어 교육의 장에서 공유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이 어떠한 학습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재료를 제공하고 문제를 검토할 계기를 얻고자 하는 데에 있다.<sup>1)</sup>

## 2. 텔레비전 “한글 강좌”의 개관

### 2.1 NHK “한글 강좌”란?

NHK 텔레비전 “한글 강좌”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주 다음과 같은 시간대에 교육방송에서 방송된다.

본방송 화요일 23:30-23:55	(25분간)
재방송 일요일 6:00-6:25	(25분간)

일본의 새 학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1년을 단위로 해마다 개편된다. 현재 1년은 4월~9월, 10월~3월의 2기간으로 방송 단위가 나뉘어져 있다.

방송과 연계되는 잡지 형식의 인쇄 교재가 매달 발간된다. A5판으로 강좌 부분이 매호 110 페이지 정도 분량의 텍스트이다. 350엔으로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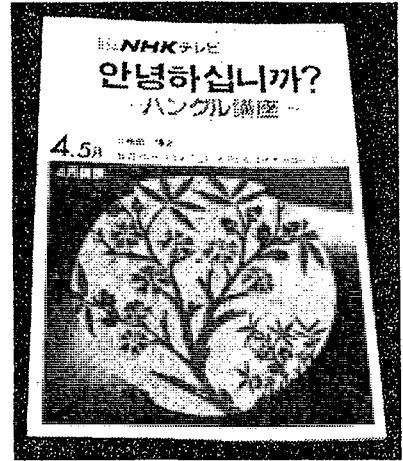
본고에서 소개하는 것은 필자인 노마 히데키와 김진아가 감수자와 강사 및 교재 집필자로 직접 참여한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한글 강좌” 프로그램과 그 인쇄 교재이다.

---

1) 노마[野間秀樹]·나카지마[中島仁](2005ab)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100년사 및 한국어 교재 100년사에 관한 논고도 참조하기 바란다.

## 2.2 2005년도 “한글 강좌”가 태어난 배경

일본 NHK 텔레비전 한국어 교육 방송은 1984년에 “ハングル講座 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한글 강좌 안녕하십니까?)”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초대 강사는 당시 동경외국어대학 교수였던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였다.<sup>2)</sup> 그 후, 21년 동안 “한글 강좌”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05년도 “한글 강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 전사(前史)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텔레비전 교재 참간호(1984)

### 2.2.1 “한글 강좌”의 양적인 변화

“한글 강좌”의 양적인 변화는, 근년의 극적인 확대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재 발행부수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근래의 발행부수를 보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8, 9만부 정도였던 교재 발행 부수가, 2002년 이후로 획기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4년도에는 20만부를 넘었다. 그뿐 아니라 2001년까지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되었던 격월지가 2002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월간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양적인 확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2005년도의 교재는 4월호 발행 부수가 22만부를 기록하고 있으며<sup>3)</sup> 이러한 숫자에서 현재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열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교재 발행 부수와 방송 시청자 수의 비율을 관계자는 1:3 내지는 1:5 정도로 보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1:10이라는 견해까지 존

2) 이 강좌 개설의 경위에 대해서는 야하기[矢作勝美](1984)를 참조. 라디오는 오에 [大江孝男]가 강사를 맡았다.

3) 인쇄 교재 출판사인 NHK출판은 공식적으로 발행 부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2005년의 발행 부수는 광고 대리점 등의 비공식적인 정보임.

재한다. 3~5배로 미루어 보면 60~100만 명 정도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는 셈이다. 시청률도 교육 방송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1% 라인을 넘을 경우가 더러 있다는 보고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온다. 문자 그대로 10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시대가 온 것이다. 100만 학습자 앞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중요성에 더욱더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영어 관련을 제외한 NHK TV 어학 텍스트 발행 부수

(단위: 만부)<sup>4)</sup>

1994년도			2004년도		
순위	언어	발행 부수	순위	언어	발행 부수
1	독일어	14	1	한국어	20-18
1	불어	14	2	중국어	15
3	중국어	13	3	이탈리아어	12
4	스페인어	9	4	독일어	11
5	한국어	8	4	불어	11
5	이탈리아어	8	6	스페인어	10

그럼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NHK 텔레비전에서 주관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방송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라비아어의 7개 언어가 있는데 현재 이 언어들 중에서 교재 판매량의 순위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이다. 일본의 약 50%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소위 “제이 외국어”에서도 이미 불어, 독일어의 시대는 끝났으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하는 현상이다.

## 2.2.2 “한글 강좌”의 질적인 변화

1984년 강좌가 시작되었을 즈음에는 한국어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강사를 역임하였다. 초대 강사 우메다[梅田博之] 이후 하야카와 [早川嘉春], 마쓰오 [松尾勇] 등 한국어학 전문가들이 “한글 강좌”를 이끌어 나간 것이다.<sup>5)</sup> 언어

4) 2005년 3월 9일의 아사히[朝日]신문 웹사이트에 의함.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충실한 내용이었으나 시청률과 교재 판매량은 현재보다 저조하였다. 그 후 2004년도까지의 최근에는 언어학이나 언어 교육 이외의 분야의 강사들이 “한글 강좌”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강좌의 성격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즉, 한국어의 언어교육적인 면보다도 영화, 드라마, 노래 등으로 한국어 또는 한국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문화적인 면의 색채가 농후했던 것이다.



월간지인 텔레비전 인쇄 교재  
(2005년 4월호는 22만부 발행)

2002년 이후의 방송 학습자의 증가 추세는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으나 그 후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여건이 일본에서의 한국어 대중화에 큰 힘이 된 것이다. 그러나 방송 학습자의 압도적인 증가추세의 흐름이 안정을 유지하게 되자, 학습자의 학습 의욕 또한 고조되어 “한글 강좌”가 한국어의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5년도 “한글 강좌”는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둔 강좌로 선보이게 되었다.

### 3. 2005년도의 새로운 “한글 강좌”와 그 이념

#### 3.1 2005 “한글 강좌”의 구성

우선 2005 “한글 강좌”의 방송 프로그램으로서의 외적인 구성부터 살펴보자. 강사는 당시 동경외국어대학 강사였던 김진아[金珍娥]가 담당하였고, 강수를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 교수인 노마 히데키[野間秀樹]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가수 Ryu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음악가 구라모토 유키가 함

5) TV에서는 그 후로 하라타니[原谷治美], 張銀英, 가네와카[兼若逸之], 오구라[小倉紀藏] 등이 강사를 맡았다.

게 출연하였다.

1회분은 25분간이며 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2> 2005년도 “한글 강좌” 진행 순서

배정 시간	항목	내용
40초~1분	도입	인사말과 학습 내용의 소개
3분 30초~4분	드라마 VTR	일본어 자막으로 시청
10분	학습항목 및 내용 설명	드라마에서 선정한 주요 표현으로 학습
30초~1분	주요 장면 VTR	학습의 주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을 편집하여 한글 자막으로 시청
4분	연습문제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등의 연습
4분	회화의 궁극 오의 스페셜 인터뷰	회화의 주요 표현과 방법 그리고 영화의 소개와 배우들의 인터뷰를 격주로 제공
2분	마무리	배운 표현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회화를 나누고 끝인사

### 3.2 2005 “한글 강좌”의 이념

2005년도의 “한글 강좌”는 지금까지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한국어 교육을 지향했다는 데에 있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서 실현 가능한 언어 교육적인 시도를 최대한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다. 21년간 방송되어 온 “한글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2005년도 강좌에 대해서 이 글이 쓰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존재한다.

우선 본 강좌의 학습 대상은 일본 거주외의 일본어 모어화자, 특히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습 목표는 6개월간 한글능력검정시험 4급(6)을 획득할 수 있는 학습 항

- 6) “한글능력검정시험”은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어 검정시험이다. 5급이 가장 기초이며 4급, 3급, 준2급, 2급, 준1급, 1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1급이 가장 고급이다. 이 시험의 출제 기준은 유타니[油谷幸利] 외(2002)에 명시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각 레벨의 문법, 출제기준과 어휘리스트, 연어리스트, 한자표 등이 실려있다. 유타니[油谷幸利]·노마[野間秀樹]·박재수[朴宰秀]·조희철[曹

목을 다루고 있으며, 3급의 학습내용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이다. 또한 초급 학습자와 더불어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드라마와 “회화의 궁극 오의” 코너 등에서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는 “한글 강좌”는 다음과 같은 이념으로 관찰되어 있다:

- (1) 언어 그 자체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 (2) 일본어와 한국어 양 언어를 소중히 다룬다.
- (3) 현재 서울말의 언어사용에 기초를 둔다.
- (4) <누가 누구를 향해, 어떤 장면에서 하는 말인가> 라는 살아 있는 언어의 근본적인 모습에 입각한다.
- (5) 언어학과 언어교육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 (6) 학습 레벨은 초급이지만 표현의 자연스러움은 모어화자 수준을 지향한다.

2005년도에 새로이 제기된 이러한 이념들은 이번 “한글 강좌”의 이념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 방송 교재 작성의 이념, 더 나아가서 한국어 교재 작성의 일반적인 전략의 시도로서 제기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기된 각각의 이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3.2.1 언어 그 자체의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관심에 의존하여 한국어의 흥미를 끄는 시도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실제의 언어 그 자체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어디까지나 언어 학습 그 자체의 즐거움을 학습자가 획득할 수 있게 도

---

喜澈]·오문숙[吳文淑]·김진아[金珍娥]가 출제기준을 선정하고 책을 엮었다. 그 후 새로 바뀐 시험 위원들에 의해 2006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시험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2005년 이전의 것이다.

모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이하의 3.과 4.에서 논의된다. 문화적인 요소는 뒤에서 언급할 “미니 드라마” 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중성의 초성화=연음 현상을 동영상(CG)으로

발음의 변화를 문자와 시청각으로 확인

### 3.2.2 일본어와 한국어 양 언어를 소중히

종래의 경우 강좌의 출연자들 중 한국어 모어화자는 한국어식의 일본어를, 일본어 모어화자는 일본어식의 한국어를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은 강좌 진행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러운 발음과 표현으로 구사하도록 노력하였다. 강좌를 진행하는 중심이 되는 한국어 모어화자인 강사는 일본어로 강좌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음이나 표현 등의 언어 사용 모든 면에서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뒤지지 않는 일본어를 구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외의 한국어 모어화자 출연자는 일본어 사용을 자제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많이 들려 줄 것을 주된 방침으로 정하였다. 이 점은 기존의 강좌와 큰 차이점의 하나이다.

### 3.2.3 현재 서울말의 언어 사용에 입각

위의 3.1.2와 같은 맥락에서의 이념이다. 본 강좌는 규범주의적으로 언어를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언어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 규범적인 표준어(를 학습 대상 언어로 삼지는 않았



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들려 주고 알려 주기 위하여 표준어와 서울말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어에 대해서 언급은 하되 서울말을 학습 목표 언어로 삼았다. 예를 들면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ㅝ” 8개를 인정하지만 “ㅚ”와 “ㅝ”의 발음상의 구별은 서울에서는 고령층 이외에서는 구별이 거의 없다고 제시한다.<sup>8)</sup> “ㅑ”와 “ㅛ”는 각각 단모음이 아니라 [we], [wi]로 제시한다. 인쇄 교재에는 눈[nu : n]과 같이 일일이 장모음 표기를 했으나 발음상은 단모음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안녕하세요?”의 문말의 “요” 등의 발음이 문자 그대로의 좁은 원순모음 [요]가 아니라 흔히 [여]에 가깝게 발음된다는 설명은 아마 일본의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발음은 “미니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발음에서 학습자가 시청각적으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4년까지의 “한글 강좌”에는 방송 출연자 중에 한국어의 지방 방언의 화자도 있어서 균일적인 발음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리고 일본어 모어화자가 출연자일 경우에는 일본어 모어화자의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학습자들은 듣고 따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놀랍게도 종래의 강좌는 이러한 면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국어 모어화자이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여 표준어와 서울말, 그리고 방언화자의 구별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2005년 “한글 강좌”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준어 혹은 서울말을 전달한다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강사와 출연자는 모두 서울말의 모어화자이다. 드라마의 배우들도 서울말 화자들을 캐스팅하였고 엑스트라 출연자도 서울말 화자로 선정하였다. 짧은 방송 시간 내에 아름다운 한국어를 한번이라도 더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배려에서 일본 유학생 역의 배우까지 일본어 모어화자가 아닌 한국어 서울말 모어화자가 연기

7) 본고는 표준어와 서울말을 구별하는 입장을 취한다. 표준어는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규범적인 한국어로 표준어를 한국어 교육의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규범주의적인 입장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대 서울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그것에 입각하여 한국어 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기술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후자의 입장을 택하는 것이다.

8) 단, 단모음의 도입 부분에서는 “ㅚ”와 “ㅝ”를 구별하였다.

하도록 했다.

### 3.2.4 <누가 누구를 향해, 어떤 장면에서 하는 말인가>

기존의 교육에서 자칫하면 빠지기 쉬웠던 함정 중의 하나로서 “문장(sentence)의 질곡(桎梏)”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함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문장의 내부의 다양한 요소는 발화 장면을 포함한 문장 외부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장 내부에서 모든 문법 현상을 설명하려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한계이다. 언어가 실제로 행해지는 장면을 떠나 문장을 그 자체만으로 충족된 언어 단위로 보는 데에서 오는 함정인 것이다.) 언어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하는 말인가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떠나서는 언어를 가르칠 수 없다. 하나의 문장의 기계적인 대치 연습, 형태 만들기 연습에만 중점을 두는 교육에서는 교사는 장면을 얼마든지 상기할 수 있어도 학습자는 장면성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기 어렵다. 모든 표현은 그것이 사용되는 장면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언어 사용의 이러한 실재를 시각화하여 알려 주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2005 강좌에서는 자체 내에서 “미니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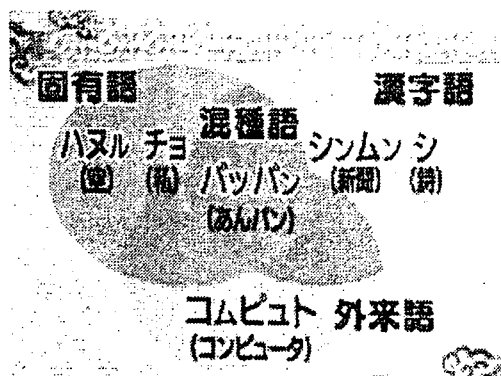
초급 레벨의 인사 같은 간단한 표현에서부터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장면, 상황 등을 스토리 안에서 파악하며 말의 정적인 모습이 아닌 살아 있는 동적인 모습에서 모든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3.2.5 대조언어학과 언어교육학의 연구 성과에 입각하여

문자와 발음, 표현, 회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 항목에 있어서 기존의 언어학과 언어교육학의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를 살려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의 성과를 중점

9) 언어가 행해지는 장소로서의 “언어장”(言語場)과 문장, 발화, 담화/텍스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Noma(2005), 노마[野間秀樹](2006) 참조.

적으로 도입한 것은 본 강좌 전체를 관철하는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어인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디가 어떻게 다르고 어디가 유사한가— 이러한 물음은 학습의 모든 단계에서 의식적으로 던져진다. 학습자는 모어인 일본어를 기점으로 모어와의 거리를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계측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는 일본어와 유사한 어종(語種)을 시각적으로 확인

### 3.2.6 초급 레벨에서부터 자연스러운 표현을

문자와 발음을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와 표현을 골라 제시하였다. 배우는 항목은 적더라도 배우는 표현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운 것은 전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모어화자에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초보자라는 이유로 흔히 말하는 ‘교과서적인 표현’ 즉, 어색함을 허용한다는 발상은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배운 문법과 표현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학습 항목과 표현을 처음부터 제시하고자 하였다.

## 4. 2005년 “한글 강좌”의 4가지 구조체

위에서 제시한 이념들은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조체를 단위(unit)로 해서 실현된다.

- (1)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해설하는 문법과 표현
- (2) 그 주의 학습 항목을 동적인 장면에 담은 “미니 드라마”
- (3) 한일 대조 담화 연구의 성과를 살린 “회화의 궁극 오의(奧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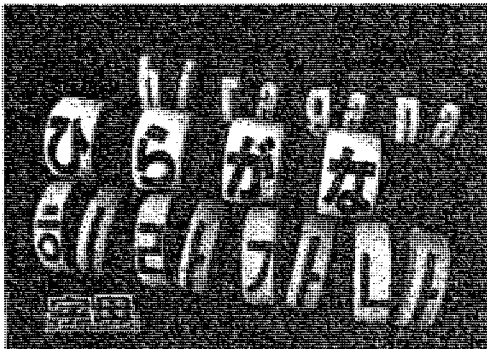
(4)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4가지 기능을 단련하는 연습 문제

4가지 구조체는 학습자가 체험하고 연습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의 특색이 있는 방법으로 배울 수 있게 구성하였다. 앞에서 말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4가지 구조체 안에서 특징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하에 상세히 소개하겠다. 그 사례들은 이 “한글 강좌”가 실현한 체험의 기록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방송 교재 작성뿐만 아니라 시청각 교재, 나아가서는 한국어 교재 개발 일반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6개월 동안의 학습 요목은 본고 말미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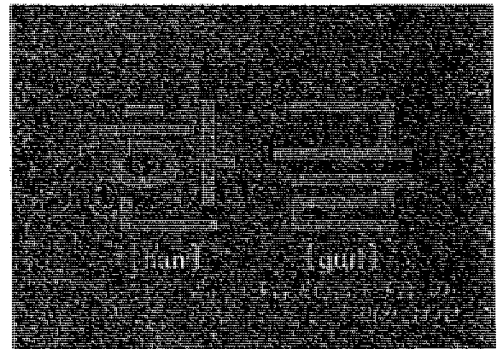
## 4.1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 4.1.1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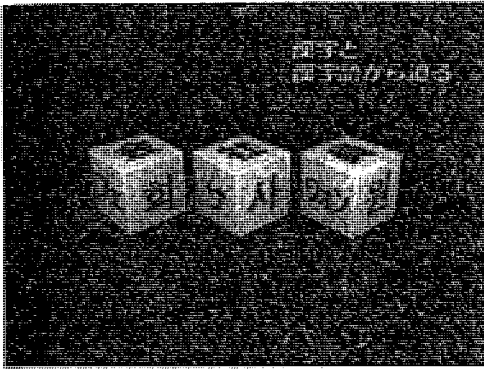
일본어의 문자에 한글을 대응시켜 제시하여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자 구조의 원리적 차이와 한국어 문자 구조 성립을 설명하였다. 일본어 문자 히라가나에서 한글로 유도함으로써 일본어 모어화자 학습자들이 한글의 세계로 쉽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전개하였다. 아울러 한일 한자음과 한자어의 원리에 관해서도 첫 강좌에서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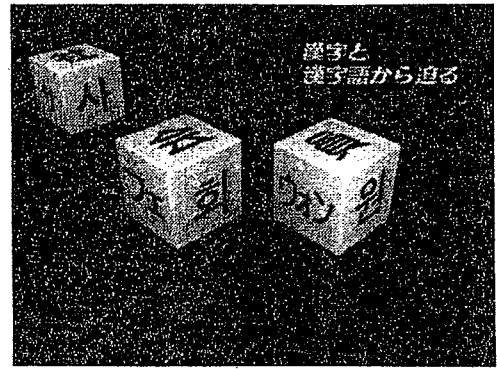
가나와 로마자, 한글을 서로 대조하면서  
한글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설명



자음+모음+자음의 조합을 동적으로 확인



한자와 한자어의 원리를  
정교한 동영상(CG)으로 제시



"회사원"을 알면 "회원"을 알 수 있고  
"사회"도 알 수 있다

#### 4.1.2 발음

문자와 발음의 도입에는 크게 나누어서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와 같이 문자의 레벨에서, 즉 모음 자모를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식과, (2) “ㅏ, ㅣ, ㅜ, ㅡ, ㅑ, ㅓ, ㅗ, ㅕ”와 같이 음소의 레벨에서 단모음을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있다. (1)의 방식은 문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ㅑ”, “ㅓ”와 같은 단모음 자모를 따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모음”의 전체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ㅑ”, “ㅓ”와 같은 단모음을 모음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워진다. 본 강좌에서는 (2)의 방식을, 그것도 일본어와 대조하면서 도입한다.



"발음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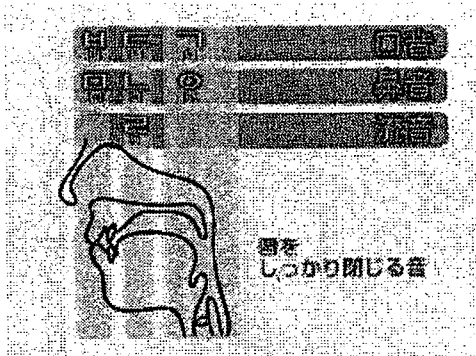
(단모음을 모음 삼각형과 강사의 입모양을 보면서 연습, 일본어와 대조하면서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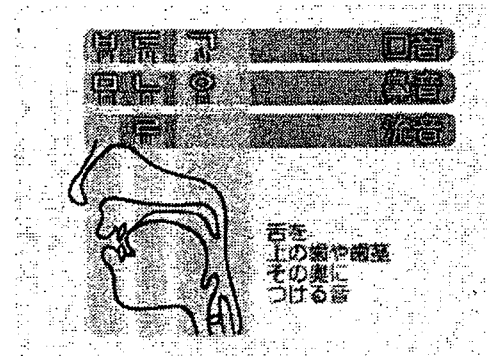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모든 모음과 자음을 일본어의 모음과 자음의 발음과 대조하면서 제시하였다. 자음 문자의 성립에 관해서는 발음할 때의 혀와 입술, 치아의 모양도 알기 쉽게 동영상(CG)으로 제시하였다.



입 모양도 보면서 모음을 연습



문자와 발음 기관의 관계를 동영상으로 확인  
“입술을 꼭 다무는 소리”



조음점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구음”, “비음”,  
“유음”의 개념도 제시

### 4.1.3 문법<sup>10)</sup>

#### 4.1.3.1 문체

공손한 문체인 “해요”체와 “합니다”체를 본 강좌의 학습 문체로 설정했

10) 학습 항목의 설명은 CG와 자막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글과 일본어 양 언어를 제시하고 어미 종류와 접미사는 다른 색으로 제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도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 “하오”체와 “하네”체 같은 문체들도 있으나 “해요”체와 “합니다”체가 현대 서울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체라는 입장을 따른 것이다.<sup>11)</sup> 현대 서울말의 기본적인 틀은 <표 3>과 같이 파악한다.

문체 명칭도 “해요체”와 “합니다체”를 사용하였고, “합쇼체”와 같은 현실에서 떨어진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반말체인 “해”체, 그리고 문장체인 “한다”체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용으로서 드라마의 시나리오에서 접할 수 있게 하고 교재의 드라마 설명 부분에서 그 쓰임을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표 3> 현대 서울말과 일본어의 화계(speech level)

	회화체(입말)	문장체(글말)	해당되는 일본어
경의체 (소위 존댓말)	“해요”체 “합니다”체	(“해요”체 “합니다”체)	“simasu”체 (desu, masu 체)
비경의체 (소위 반말)	“해”체	“한다”체	“suru”체

“해요”체와 “합니다”체는 처음부터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단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해요”체가 본 강좌의 중심이다.<sup>12)</sup> 일본어의

11) “하오”체와 “하네”체는 주로 드라마나 영화 등에 나오는 의사(擬似)회화체에서 사용되는 사회방언화된 문체이며, 현대 서울말에서는 거의 사멸해 가고 있는 문체이다. 현대 서울말은 한국어 교재 등에서 흔히 설명되는 4단계 내지는 6단계의 speech level 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의체인 “합니다”체와 “해요”체, 그리고 비경의체인 “해”체라는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문장체의 “초기치”(default) 문체는 “한다”체이다. 노마[野間秀樹](1996a), 노마[野間秀樹](2002a: 69-108) 참조.

12) 본 강좌에서는 모음어간 뒤에 결합되는 지정사의 표기는 “후배예요”도 인정하면서 “후배예요”처럼 “-예요”로 표기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맞춤법상 “-예요”와 “-에요”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맞춤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어연구원의 소위 “가나다 전화”에서 “-예요”가 옳다는 견해를 공개한 후 한국에서는 교재에 “-예요”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맞춤법 그 자체의 규정은 아니다. 참고로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예요”라는 표제어는 있으나 “-에요”는 없다. 또한 표준어 규정(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 26항에 “-이에요”와 “-이어요”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에요”와 “-에요”에 관한 규정은 없음을 밝혀 둔다.



desu, masu체라는 하나의 경의체에 한국어의 “해요”체, “합니다”체의 두 가지 경의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제시한다.

드라마를 이용하여 문맥의 흐름과 실제 장면에서 두 가지 문체를 동시에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차이를 시청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화계의 움직임(speech level shift)<sup>13)</sup>의 양상도 제시하였다.

#### 4.1.3.2 용언의 활용과 어기(語基)에 의한 해설

##### (1) 문법론과 문법 교육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어기론

본 강좌의 문법 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어기(語基)에 의한 용언 활용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소위 어기론(語基論)은 일찍이 박승빈[朴勝彬]을 비롯한 한국의 학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홀로도비치(Kholodovich)와 같은 유럽 학자도 어기론에 가까운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어 연구 및 한국어 교육에서는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12-1998)가 정식화한 이래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기론으로 학습한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었고 수많은 교재들이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서 전면적으로 어기론을 전개한 강좌는 최근에는 없었다.<sup>14)</sup>

---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강좌 인쇄교재 2005년 5월호 111-112 페이지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맞춤법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맞춤법 개정 후에도 이미 몇 년에 걸쳐 한국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과서에는 “-에요”와 “-예요” 양쪽이 다 사용되었던 것이며 이미 많은 학습자들이 이 양쪽으로 배웠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검정시험 등에서 “-에요”를 틀린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13) 회화를 구성하는 발화의 화계(speech level)가 경의체인 “해요”체, “합니다”체에서 반말체인 “해”체로, “해”체에서 “해요”체, “합니다”체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金珍娥(2002) 참조.

14) 라디오에서는 간노[菅野裕臣], 하마노우에[浜之上幸], 나리사와[成澤勝], 우치야마[内山正春], 노마[野間秀樹] 등이 어기론을 택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하야가와[早川嘉春]가 텔레비전에서도 어기론을 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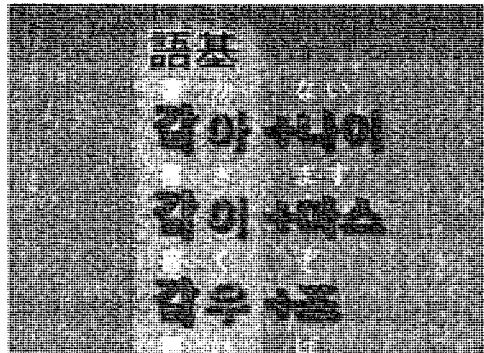
(2) 한일대조로 제시하는 용언 활용의 원리

일반적인 교재와는 달리 용언의 활용의 도입은 시청자들의 일본어에 대한 지식을 살려 어기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관찰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선 일본어 용언 활용의 구조를 한글로 나타내어 어기의 개념을 도입했다. 일본어의 書く(kak-u)의 활용을 “각-아-나이”, “각-이-마스”와 같이 “각(어간)+이(어기 형성 모음)+마스(어미)”로 구조화하여 보여 준다. 이 장면은 일본의 학교 문법에서는 음절문자인 히라가나를 사용하여 지금까지는 “書かない 가카나이”(kaka-nai)로밖에 분석하지 못한 부분을 한글로 “각-아-나이”와 같이 표기함으로써 동사 “書く(kak-u)”가 사실은 자음어간 동사임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일본어의 음절을 가나보다 더 작은 단위로 분절하여 용언의 활용을 생각해 보는 이러한 체험은, 일본의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문헌을 남긴 17세기 국학(國學)을 비롯한 일본의 국어문법의 전통이 가나보다 더 작은 단위로 파고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상기시켜 준다. 한글이라는 문자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일본어를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제시하면서 어기론을 전개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일본어 동사 “kak-u”(쓰다)를 한글로 쓰는 자음어간과 어기 형성모음을 발견



용언의 활용을 일본어와 대조하면서 배운다  
어미가 어떤 형태에 붙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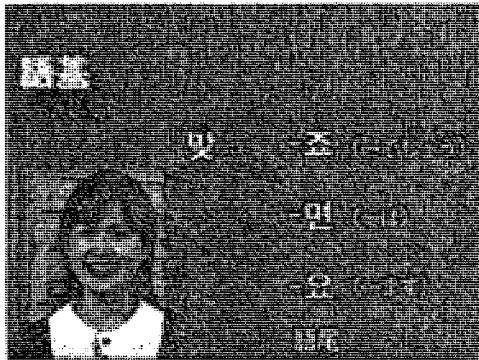
(3) 일본어의 6개 어기와 한국어의 3개 어기를 대조

일본어의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5단활용”의 경우에는 어기가 6개 있는 것을 제시하고 나서 한국어의 어기가 3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간단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함이다. 예로 동사 ‘맞다’의 3가지 어기를 제I 어기 “맞.”, 제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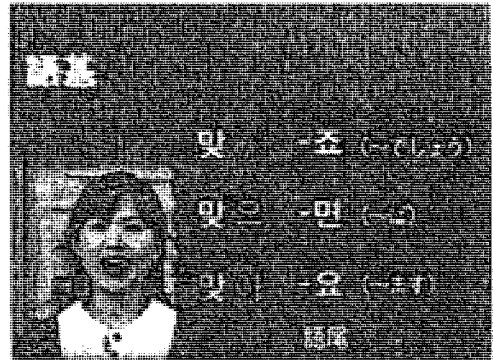


일본어, "-masu"라는 어미는 언제나 "kak-i-"라는 어기에 붙는다. 납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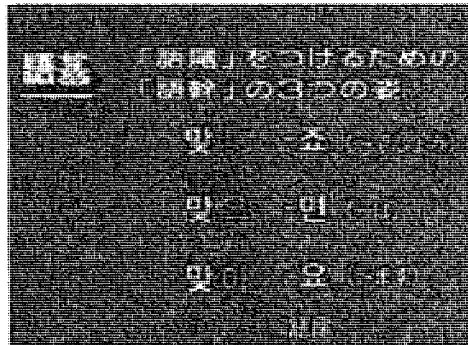
어기 "맞으-", 제Ⅲ어기 "맞아-"와 같이 제시한다. 어기와 어미의 관계는 "맞으면"이라면 "맞(어간) + 으(어기 형성 모음15) + -면(어미)"처럼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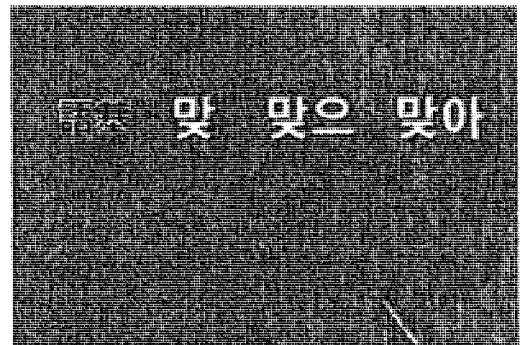
한국어에서도 어간에 직접 어미가 붙는 것은 아니다



어기는 어간에 어기 형성모음을 붙임으로써 만들어진다



"어기"란 어미를 붙이기 위한 어간의 3가지 모습 일본어는 6가지인데!



한국어의 3가지 어기. 다음어간 용언 "맞다"의 경우 한국어의 어기는 3개뿐!

15) 제Ⅱ어기의 어기 형성모음은 Bindevokal(연결모음)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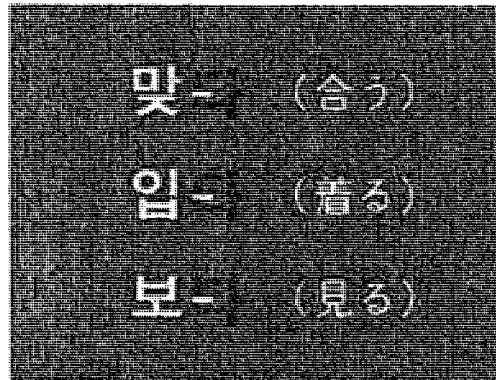
<표 4> 자음어간의 용언과 모음어간의 용언의 3가지 어기

	<자음어간 용언>	<모음어간 용언>
사전형	맞-다	보-다
제 I 어기	맞-	보-
제 II 어기	맞으-	보-
제 III 어기	맞아-	보아- (글말) 봐 (입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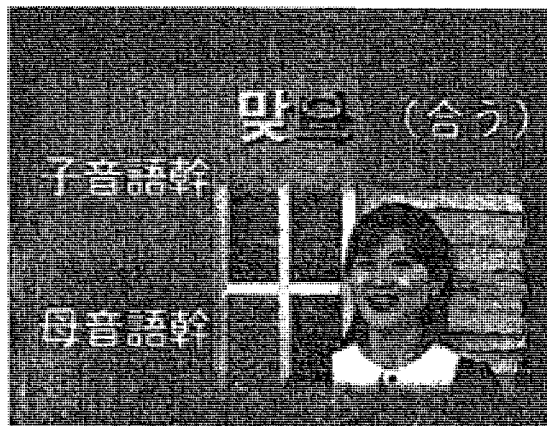
(4) 3가지 어기는 사전형에서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학습 정복의 의욕 모든 용언은 각각 3가지 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기는 기본적으로는 사전형에서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영어의 go-went-gone과 같은 암기가 필요 없다는 점은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더욱 고무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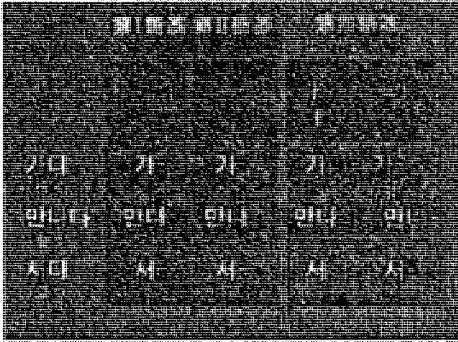
3가지 어기는 사전형에서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다! = 학습자의 기쁨!



사전형에서 "-다"를 빼면 어간 = 제 I 어기 간단하다!



자음어간은 "-으-"를 붙이면 제 II 어기  
모음어간은 아무 것도 안 붙인다



제III어기의 변종. "가아"는 "가", "만나아"는 "만나", "서어"는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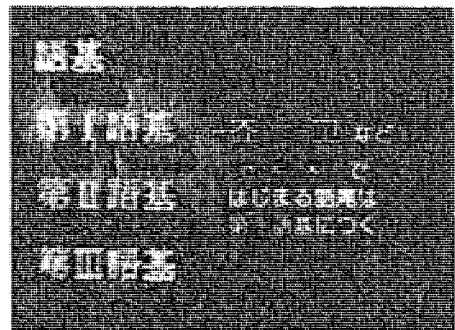
제III어기는 어간의 마지막 모음에 따라 "-아" 아니면 "-어"를.

어기론에서는 3가지 어기만 알면 그 용언의 활용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이미 한국의 국어학, 특히 사전학에서는 사실상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연세 한국어사전”과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 그것이다. 이 사전들은 모든 용언에 전자는 “좋은, 좋아, 좋습니다”와 같이 ⅡⅢⅠ의 순서로, 후자는 “좋아, 좋으니, 좋소”와 같이 ⅢⅡⅠ의 순서로, Ⅰ=“좋-”, Ⅱ=“좋으-”, Ⅲ=“좋아-”라는 3가지 어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3가지 어기를 제시하면 그 용언의 활용은 다 알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입각한 것으로, 어기와 어미를 어디서 구분하는가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는 어기론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기의 형성을 배운 후, 어기와 어미와의 관계에 대해 제시한다. 모든 어미는 3가지 어기 중 몇 어기에 붙는가 정해져 있다. 그것은 마치 일본어의 동사 “書く(kak-u) 각우”에 “마스 -masu”가 붙을 때에는 “각이-”라는 어기에 붙는다고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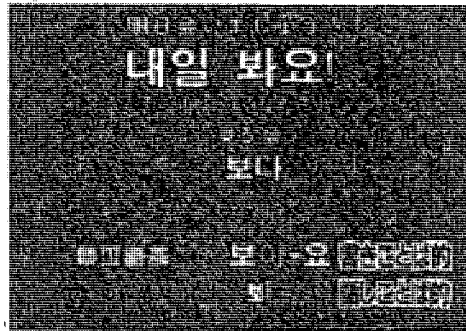


모든 어미는 3가지 중 어느 어기에 결합되는가가 정해져 있다



“ㅈ”, “ㄱ” 등으로 시작되는 어미는 제 I 어기에 붙는다. 어미의 두음으로 판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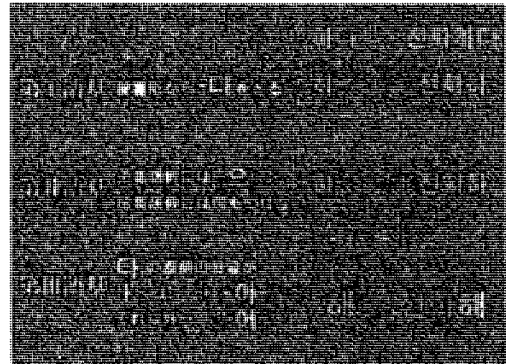
비모어화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고맙다”와 같은 ㅂ변격활용의 경우, 한국의 학교 문법식으로 “고맙+으면”, “고맙+으니”, “고맙+으시-”, 그리고 “고맙-아서/어서”, “고맙-았/었-”과 같은 결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엄청난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은 대부분의 교재가 어미나 선어말어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모어화자에게는 그러한 설명은 아예 필요가 없으나 학습자들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어기론으로는 제Ⅰ어기 “고맙-”, 제Ⅱ어기 “고마우-”, 제Ⅲ어기 “고마워-”라는 어기를 제시해 주면 그것으로 적어도 설명 그 자체는 끝난다. “모르다”의 제Ⅰ어기와 제Ⅱ어기는 “모르-”, 제Ⅲ어기는 “몰라-”라는 식으로.



제Ⅲ어기 + “-오”는 “해요”체를 만든다  
“보아”는 글말의, “봐”는 입말의 제Ⅲ어기



“하다”용언의 제Ⅲ어기 + “-요”의 연습. “해요”, “전화해요”



“하다”용언의 제Ⅲ어기는 “해”

소위 선어말어미에 관해서도 <표 4>와 같이 어기론으로는 용언의 본체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수학처럼 배워서 음악처럼 얘기한다”를 구호로 내걸고 있다. 어기로 용언의 활용형을 만드는 방법은 학습 내용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매주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어기론에 입각한 이러한 학습 방식은 2004년도~2005년도 라디오 강좌 7~9월 응용편에서도 이미 전개한 바 있다.

<표 4> 용언 접미사 = 선어말어미의 3가지 어기

사전형	제Ⅰ어기	제Ⅱ어기	제Ⅲ어기
-겠-	-겠-	-겠으-	-겠어-
-쓰-	-쓰-	-쓰으-	-쓰어-
-시-	-시-	-시-	-시어-> -셔- -세- (‘-요’ 앞에서만)

#### 4.1.3.3 공손화 표지 “-요/-이요”

학습 항목은 인사 표현과 자기소개 표현부터 시작하여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저요?”, “왜요?”, “아직이요”, “사실은요”와 같은 “-요/-이요”를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그리고 한 과의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은 본 강좌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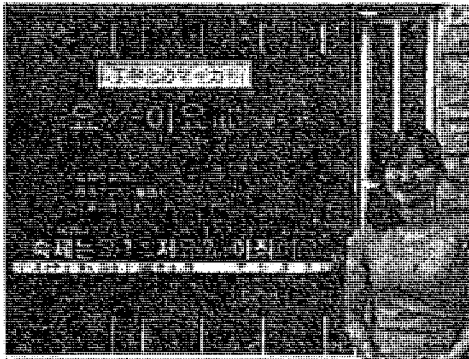


공손화 표지 “-요/-이요”의 초기 단계에서의 도입한 과의 중심적인 학습 항목으로서 설정하고 있다



“미니 드라마”에서 배우는 공손화 표지 “-요/-이요”. 되묻기 표현에서 도입

이 공손화 표시인 “-요/-이요”는 실제 회화에서는 많이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거의 없다. “-요/-이요”는 지정사 “-이다”의 “해요”체와 혼동되는 등,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문법론에서도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요/-이요”에서 “-이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요”만을 인정함으로써 “있어요”, “가요”의 “-요”와 동일시하는 데에서 연유되는 오류이다. 말할 것도 없이 지정사 “-이다”의 “해요”체는 “-이에요”이지 “-이요”는 아니다. 또한 이것은 “하오”체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공손화 표시 “-요/-이요”는 공손화를 주된 기능으로 가질 뿐, 시제나 범성의 기능은 없다. “-요/-이요”에 “과거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음성적인 언어 사실에서도 지정사 “-이다”는 그 결합에 있어서 “ㄴ”삽입을 일으키지 않는 데에 비해 공손화 “-요/-이요”는 “사실은요” [사시른뇨]와 같은 “ㄴ”삽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 준다.



공손화 표시 “-요/-이요”의 사용법을 설명

본 강좌에서는 “-이에요”와 “-요/-이요”의 기능적, 그리고 형태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16)</sup> “-요/-이요”는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므로 초급의 빠른 단계에서 학습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은 노마[野間秀樹](1988)~노마[野間秀樹](2000) 이후의 방침을 일관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노마[野間秀樹](2006 forthcoming)

에서 “-요/-이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죠”, “-는데요/-ㄴ데요”나 “-거든요”와 같

16) 李相億 외(1994:48)는 “-이요”를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운호 외(1998:107)에서도 제1권의 후반부이긴 하나 “-요”의 기능의 일부를 다루고 있다. 노마[野間秀樹](2000:59)에서는 제9과에서, 노마[野間秀樹]·무라타[村田寬]·김진아[金珍娥](2004:61)에서는 제7과에서, 그리고 중급용 학습서인 노마[野間秀樹]·김진아[金珍娥](2004:43)에서는 제2과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공손화 “-요/-이요”를 지정사 “-이다”의 “해요”체인 “-이에요”와 혼동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아 교재에는 확실한 기술이 필요하다. 본 인쇄 교재에서는 2005년 6월호 제9과에서 다루었다.



은 어미도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초급 단계에서부터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법항목을 자연스럽게 도입하여 “초급 레벨에서도 모어화자 수준의 회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4.1.3.4 존경의 -시-

존경 표현은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그 대상과 사용 장면의 폭이 넓고 매우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일본어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강조하여 제시한다. 또한 그런 이유로 용언의 활용이 끝난 직후인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존경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 4.1.4 표현

회화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일본어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 표현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일본어 모어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돕는 한편, 일본어와 다른 구조를 보이는 표현들도 제시하여 일본어와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어 자체의 로고스”를 획득하는 것도 목표로 하였다.

#### 4.1.5 회화

우선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어 회화의 감각을 익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3분 정도의 “회화의 궁극 오의” 코너에서는 지금까지의 일본어와 한국어의 담화 연구의 성과를 도입하여 회화 구조에서 회화 표현에 이르기까지 양언어의 차이점 등을 다각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연습문제 코너와 엔딩 부분에서 그날 학습한 문법 항목을 사용하여 간단한 응용 회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 4.2 드라마—살아 있는 장면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예년의 “한글 강좌”에서도 skit은 많이 사용되었으며 드라마의 시도도 있

었다. 그러나 이 강좌가 예년의 강좌와 크게 다른 점은, 기존의 어학용 드라마의 차원을 넘어 선, 6개월간 20회에 걸친 연속 드라마로서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본격적인 드라마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물건 사기, 식당에서 주문하기, 전화하기, 약속하기, 허가 요청하기 등의 기능별, 장면별 표현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회화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속촌, 화성, 미사리, 한강, 여의도, 신촌, 명동, 제부도 등의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문화와 그 지역의 모습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드라마는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서 모든 것을 촬영하였으며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대학은 경희대학교이다. 드라마를 통해 문화적인 면과 일상생활 양식, 화법, 경어법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다.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강사인 김진아가 집필하였고, 10여명의 한국어 모어화자의 체크를 받아 완성하였다. 본 강좌에서 제작한 드라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4.2.1 배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말 화자의 배우들을 캐스팅하였다.

연기할 때에도 강사와 감수자가 배우들의 발음을 최대한 체크하여 한국어 학습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드라마 주인공을 표지로

#### 4.2.2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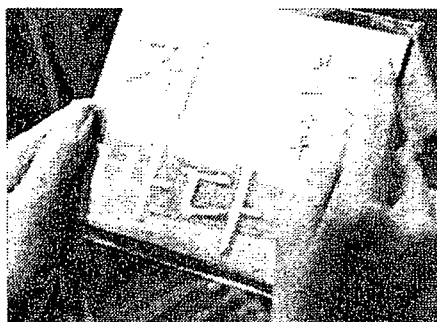
교재용 드라마라고 하면 딱딱하고 건조한 내용의 이미지를 갖기 쉽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를 깨뜨리고 젊은이들의 국경을 초월하는 러브 스토리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그런 큰 흐름 안에 제일 교포인 석우를 등장시켜 역사와 현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러한 석우를 만난 일본 유학생 마키의 눈을 통해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비춰 보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 젊은이들의 제일 교포에 대한 인식의 희박함을 재고

해 보며 재일 교포를 포함한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알아 가는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자 하였다. 일종의 조그마한 Bildungsroman(교양 소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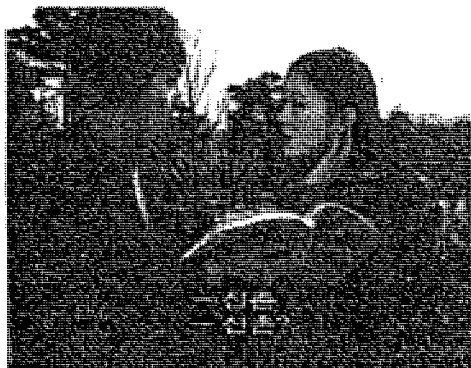
#### 4.2.3 학습 항목과 표현

그 주에 배우는 학습항목이 그 회의 드라마 대사에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오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문자와 발음”에서 모음과 초성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CD 가게에서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손가락으로 그려 보며 읽는 장면을 통하여 자모의 발음과 읽기, 쓰기 연습을 꾀하였다. 요컨대 드라마 안의 주인공들의 체험을 시청자들이 추체험(追體驗, Nacherleben)하는 것이다. 또 종성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지도를 보며 가고 싶은 지역의 이름을 읽는 장면으로 읽기와 발음연습을 꾀하였다. 모든 종류의 종성의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 지역 이름을 엄밀히 선정하였다.



일본인 주인공인 마키가 CD 가게에서 CD 제목을 읽는 장면. 시청자도 함께 읽는다.



첫만남에서 마키의 발음을 고쳐 주는 준호



자기 소개 표현. 지정사 “-입니다”의 도입 지은이도 준호를 좋아한다



"하다"용언을 배운다. 석우와 애기가 잘 통한다는 말을 듣고 준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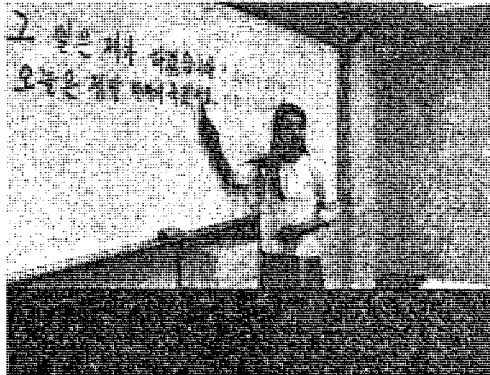
금지 표현을 배운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요."



일본어 자막으로 확인  
준호와 친해져 가는 마키



마키와 준호를 다룬 지은이도 이제 성장했다



한국에서 준호와 헤어진 마키는 일본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사가 된다. 드라마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겠-"은 이 회의 학습 항목이기도 하다



마지막 회  
일본에 만나러 온 준호를 향해 달려가는 마키. "-겠-"을 배운다

“용언의 활용”에 들어가서는 자음어간과 모음어간, 그리고 ㄴ어간의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학습하는데 자음어간 용언의 활용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드라마에서 “좋다”, “괜찮다”, “있다”, “없다” 등의 용언을 양모음어간과 음모음어간을 고려하여 활용연습이 될 수 있도록 대사를 고안하였다. 모음어간 용언을 학습하는 날에도 양모음어간과 음모음어간의 용언을 구별하여 대사를 구성하였다.

“어미”류의 학습에는 다양한 종류의 용언에 어미를 붙여 연습하게 하는데 “어미가 어떤 음으로 시작되는가”에 따라 제Ⅰ어기, 제Ⅱ어기, 제Ⅲ어기 중 어느 어기에 어미가 붙느냐가 정해져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는 어미는 각각의 기능들이 드라마의 대사에 전부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죠”를 학습한 날의 드라마는 각 기능의 “-죠”<sup>17)</sup>를 사용한 대사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그날 학습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누가 누구를 향해 어떤 장면에서 하는 말인가> 라는, 살아 있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양상을 실제 장면에서 시청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 4.2.4 다양한 연령층의 등장인물

4명의 주인공을 대학생의 남녀로 구성하고 선배, 후배로 나이 차이를 둬으로써, 현재 서울의 젊은이들의 남성스러운 표현과 여성스러운 표현, 대우 표현과 반말체의 표현을 두루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버스를 타는 할아버지, 석우와 길에서 부딪히는 할머니,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 민속촌 노점상의 아주머니 등 다양한 연령층과 유형의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다양한 말투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주인공들의 손윗사람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경어 사용의 장면도 엿볼 수 있다.

17) “-죠”의 기능은 “그거 맛있죠?”와 같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죠”, “이게 얼마죠?”와 같은 “공손히 의문을 표현하는 -죠”, “오빠하고는 얘기도 많이 하죠”와 같은 “화자가 공손히 확인을 표명하는 -죠”, “같이 가죠”와 같은 “공손한 권유의 -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재일교포 석우와 일본인 마키. 도서관에서 역사 책을 찾는다.  
마키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알게 되는 과정. 과거형을 배우면서 “과거”를 알게 된다.

#### 4.2.5 다양한 레벨의 학습자들을 위하여

초급뿐만 아니라 중급이상의 학습자들에게도 유의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항목이 아닌 부분도 교재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단어의 해설 및 관련 단어의 제공, 문법 사항의 해설, 여러 어미가 겹쳐 있는 문말의 문법적 분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재에는 대사 부분 이외에 상황을 묘사하는 지문도 실었다. 대사와 지문에 일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제시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여 표현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 4.3 “회화의 궁극 오의(窮極 奧義)”-담화의 한일 대조연구에서



부를 때의 표현과 이야기의 전제 표현



일본어의 경의체와 비경의체에 주목시킨 다음에 한국어와 대조

이번 텔레비전 강좌에서는 그러한 담화적인 측면의 한일대조를 더욱 대대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전개하고 있다. 해설이나 드라마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서는 “회화의 궁극 오의”라는 코너명 아래, 말해진 언어의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느 교재와 방송에서도 목적의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담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코너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가장 컸던 부분의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에 관한 문화론에서 흔히 보이는 주관적인 관찰에 의한 논의가 아니라 주로 金珍娥(2002, 2003, 2004)를 비롯한 실제 담화 연구의 성과에 입각한 것이다.<sup>18)</sup> 일본어와 한국어의 담화분석의 이러한 대조연구의 결과를 최대한 살려 일반 학습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강사의 설명과 애니메이션, 성우에 의한 전문적인 음성 녹음, 자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회화 구조의 차이와 유사점, 회화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맞장구” 표현과 주의 환기 표현 등을 테마로 다루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말 화계의 움직임(speech level shift)을 “문말의 다이내미즘”이라는 테마로 제시

■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의 차이

■ 맞장구 표현

일본어: 한국어보다 빈도가 높다.

18) 이러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적인 관점에서의 담화 연구는 金珍娥(2006)에서 총괄되었고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u- -n, u- -n’와 같이 긴 발화가 많다.

soodesu, soodesu, soodesu 와 같이 반복해서 발화하는 경향이 많다.  
상대방의 발화에 길게 겹쳐서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공유의 기능”

한국어: ‘아’, ‘응’, ‘맞아요’ 처럼 한마디씩 짧은 발화가 대부분이다.

상대방의 발화와 겹침이 적고 상대방이 부여하는 휴지 사이에서 발화하는 경향이 많다. “배려의 기능”

■ 부를 때의 표현

일본어에서는 ‘sumimasen’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미안합니다’로 사과할 때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는 ‘저(ano)’, ‘저기(asoko)’, ‘저기요(asoko-desuyo)’, ‘여기요(koko-desuyo)’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 회화 참가자들의 “말의 중복 구조”

일본어: 두 사람의 화자가 겹쳐서 동시에 함께 발화하는 부분이 한 회화에 있어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어: 두 사람의 발화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겹친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곧 발화를 포기한다.

■ 말 시작할 때의 “전제 표현”

일본어에서 ‘sumimasen’, ‘tyotto iidesuka’가 말 시작의 전제 표현으로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미안합니다’, ‘좀 좋아요?’라는 뜻으로 한국어에서는 말 시작의 전제 표현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저기요(asoko-desuyo)’, ‘저, 죄송한데요(ano, moosiwake gozaimasenga)’, ‘있잖아요(aruzyanai-desuka)’, ‘근데요(tokorode-desune)’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sumimasen’(미안합니다) 이야기

일본어 ‘sumimasen’이 사용되는 다음 장면의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제시하였다:

사과: 미안합니다

부를 때나 말을 시작할 때: 저, 저기요

주의 환기: ‘네’ (ex: ‘네, 2300원입니다’ ‘sumimasen, 2300-endesu’)

화제 전환: 그럼, 근데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 II-르게요(daizini -simasu, ex: 잘 먹을게요, 잘 쓸게요)

■ ‘siturei’ (실례) 이야기

일본어의 ‘siturei-simasu’(실례합니다)가 사용되는 다음 장면의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제시하였다:

어딘가를 방문했을 때나, 앞으로 할 일을 예고할 때: 실례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전화를 끊을 때: 안녕히 계세요

허가를 얻을 때: III-도 돼요?

(-sitemo iidesuka, ex: 여기 앉아도 돼요?, 이것 좀 써도 돼요?)

사과할 때: 죄송합니다

■ 한 순간 한마디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감탄사들을 모아 한국어 표현을 제시하였다.

‘doozo’: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로 표현. -세요. 드세요, 타세요, 앉으세요

‘doomo’: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sugoi’: 와. 끝내준다. 대단하다.

‘yatta’:와. 신난다. 앗싸.

‘bikkurisita’: 깜짝이야.

‘simatta’, ‘mazui’: 어떡해. 큰일났다.

‘ganbatte’: 열심히 해. 힘내. 잘해.

■ 일본어의 “애매”표현, 한국어의 “강조”표현

일본어 회화에서는 ‘-toka’(-라든가), ‘-mitaina’(-같은), ‘-kanzide’(感じで-느낌의) ‘-tte iuka’(-라고 할까) 등의 명확히 말을 끝맺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 한국어 회화에서는 ‘막’, ‘딱’, ‘진짜’, ‘되게’와 같은 강조하는 표현들이 눈에 띄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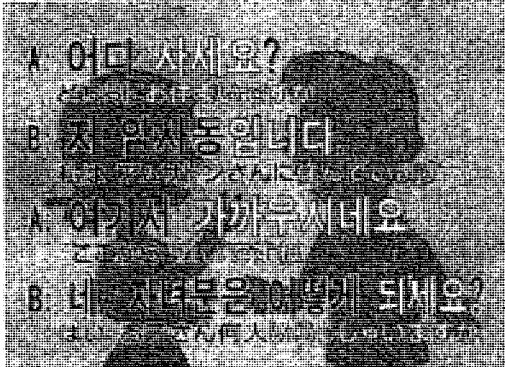
■ 회화를 구성하는 문장의 모습

일본어에서는 술어가 없는 문장의 발화가 많고, 조사로 시작되는 발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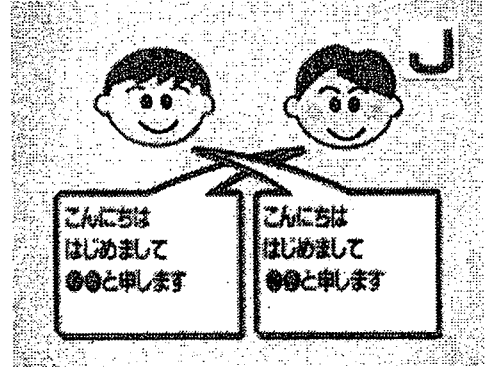
일본어의 이러한 문장의 모습이 한국어 문장의 모습과 크게 다른 점이다.

■ 문말의 다이너미즘

위에서 설명한 speech level shift의 현상을 다룬 것이다. 일본어에서는 동일한 상대방과의 하나의 회화에 있어서도 speech level shift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한국어의 speech level shift의 현상은 일본어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어는 문말에서 "합니다"체와 "해요"체의 교체가 특징적. 일본어는 경의체와 비경의체의 교체.



일본어는 상대방과 겹치는 발화가 많은 데 비해 한국어는 겹치지 않는 발화가 많다. turn-exchange론에 입각한 조사에서 얻어진 성과이다.



일본어에 많이 나타나는 애매화 표현도 명시적으로 제시

#### 4.4 4가지 기능을 단련하는 연습 문제

문법과 표현의 설명이 끝나면 학습한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학습자들의 학습 상황을 강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자기 점검평가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다양한 패턴으로 제시하여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4가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5. 마무리

본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텔레비전 “한글 강좌”는 텔레비전이라는 방송 매체의 특색을 살려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추구한 시도였다. 그 이전의 강좌와는 달리 문화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언어를 배우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학습자와 함께 하고자 노력하였다. 방송 교육은 어떠한 이념 밑에서 어떻게 실천하여야 하는가—2005년 “한글 강좌”는 그 하나의 큰 실험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교재 작성 주체에 의한 그 기록이기도 하며 여기에 담겨진 사항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료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기술한 이념과 각각의 시도들을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 공유화하여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에 살려 나가고자 한다. 문자와 발음, 어휘와 문법뿐만 아니라 표현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말해진 언어의 실현체인 담화에서 비로소 관찰되는 현상들과 학습자의 모어와의 대조라는 관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의 시도들을, 본고를 밑거름으로 하여 확대시키기도 하고 혹은 비판하기도 하면서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일구어 나아가기를 바란다.

<2005년도 일본 NHK 텔레비전 “한글 강좌” 학습 요목>

	제목	학습항목	어휘 예
1과	개설과 모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의 명칭</li> <li>· 문장의 구조</li> <li>· 표기의 구조</li> <li>· 한자와 한자어</li> <li>· 문자 쓰는 순서</li> <li>· 발음 이미지로서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지역</li> <li>· 단어의 종류</li> <li>· 한글의 구조</li> <li>· 단모음</li> </ul>
		·모음 삼각형	

2과	자음(1) 초성	·음절과 한글의 구조 ·초성을 나타내는 자음자모 (비음, 유음, 평음)	한글, 나, 우리, 누나, 머 리, 기자, 자기, 가수, 저, 비디오, 그대
3과	모음(2), 자음(2)	·단모음 복습 ·이중모음 ·자음-격음과 농음 ·가나다라 외우기 ·자음자모의 형태는 발음의 형태	오리, 우유, 얘기, 위, 왜 요?, 의미, 예의, 나의 노 래, 차, 커피, 티슈, 오빠, 찌개, 때, 어깨 등
4과	자음(3) 종성	·종성 ·종성의 초성화	밥, 옷, 강, 사랑, 서울, 책 선생님, 꽃, 인터넷 등
5과	안녕하세요?	·만남의 인사말 ·헤어질 때의 인사말 ·인사말의 발음 구음의 비음화, 응음의 약화. 문말의 모음 '요'는 [키]에 가깝게 발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각각의 '합니다'체 인사말)
6과	핫토리 마키라고 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는/-은 ·-(이)입니다 ('합니다'체) ·-(이)예요('해요'체) <모음+예요>는 '예요'도 인정 ·농음화, 구음의 비음화	박준호라고 합니다 전 핫토리 마키예요 이지 은입니다 한자어 수사-일, 이, 삼... 학교, 학년
7과	팬이세요?	·-(이)예요. -(이)예요? ·-(이)입니다. -(이)입니까? ·-(이)세요. -(이)세요? ·-(이)십니다. -(이)십니까? ·가/-이. -에 ·「A의B」→「A(의) B」	권상우 팬이세요? 일본 사람이예요 친구예요 한국 분이십니까? 동아리 후배 우리 대학 권상우
8과	복습 (제1과-제7과)	·문자와 발음 ·만남과 소개 응용 연습	
9과	정말이요?	·공손화 표지 '요/이요' ·-를/-을, -한테/-에게, -도	이, 그, 저, 어느 이것, 이거, 이견, 이게
10과	정말 멋있어요.	·용언이란? 용언의 구조 ·3개의 어기와 어미의 관계 ·어기 만드는 방법 ·자음어간 용언으로 연습 ·일본어로 이해하는 어기	맞다, 입다, 보다, 주다, 있다, 없다, 멋있다, 괜찮 다, 좋다
11과	내일 봐요.	·모음어간의 용언 활용 ·'합니다'체의 2가지 어미 ·완곡법: I-는데요/II-는데요	가다, 만나다, 서다, 보다, 주다, 오다, 배우다 학생이다 의문사: 뭐, 어디, 언제...
12과	애기가 잘 통해 요.	·'하다' 용언과 그 활용 ·지정사 '이다/아니다'의 활용 ·확인법: I-죠	하다, 전화하다, 통하다, 따뜻하다, 좋아하다, 사랑 하다, 공부하다
13과	시간 있으십니까?	·존경형(II-시-)	계시다, 있으시다, 드세 요,

			고유어 수사 - 하나, 둘, 셋... 시간 표현 -시
14과	다 찾았어요.	·접미사(=선어말어미)란? ·비과거형과 과거형: Ⅲ-ㅂ- ·존경의 과거형: Ⅱ-셨- ·근거와 전제: Ⅰ-거든요	찾다, 재미있다
15과	들어오세요.	·명령형: Ⅱ-세요, Ⅱ-십시오 ·방향, 수단, 방법: -로/-으로 ·‘ㅣ’모음어간, ‘ㅍ’모음어간 ·용언의 활용	들어오다, 타다 걸리다, 다니다, 되다
16과	화내지 마세요!	·금지의 명령형 ·지정사의 부정형: 안, Ⅰ-지 않다 ·용언의 부정형: 못 ·못하다	화내다, 친구가 아니라 나, 내, 내가, 저, 제, 제가 1인칭 대명사
17과	복습 (제9과~제16과)		
18과	어떻게 아세요?	·ㄹ활용 용언 ·ㄷ변격 용언 ·발견적 감탄: Ⅰ-네요	알다, 살다, 멀다, 듣다 알아듣다, 묻다, 받다
19과	생일 선물 받고 싶어요.	·병렬의 접속형: Ⅰ-고 ·희망: Ⅰ-고 싶다 ·ㄹ활용 용언	모르다, 고르다, 흐르다
20과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갈게요.	·원인, 동작의 선행을 나타내는 접속형: Ⅲ-서 ·약속법: Ⅱ-ㄹ게요 ·시행: Ⅲ 보다 ·Ⅰ-잖아요	
21과	내가 제일 아끼는 후배예요.	·현재기정[現在既定] 연체형: Ⅰ-는 / Ⅱ-ㄴ ·ㄷ변격 용언	쉽다, 어렵다, 돕다
22과	우리가 돌아갈 때 까지 하나 할 일 이 있어요.	·예기[豫期] 연체형: Ⅱ-ㄹ ·의뢰: Ⅲ 주다	집 안의 가구의 명칭
23과	호숫가에서 하늘, 바람, 별을 외우 던 마키 씨도...	·과거완성 연체형 ·과거체험 연체형 ·으활용 용언	신체명사와 소지품 명칭 바쁘다, 예쁘다, 쓰다
24과	기다리고 있겠습 니다.	·Ⅰ-고 있다, Ⅲ 있다 ·현장에서의 판단: Ⅰ-겠-	자연과 지형의 명칭
25과	복습 (제18과~제24과)		

## 참고문헌

- 간노[菅野裕臣](1991),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1-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61-67쪽.
- 국제문화포럼(2005), 일본의 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대학 등과 고등학교의 현 상황과 과제-, 東京: 재단법인 국제문화포럼.
- 노마[野間秀樹](1995),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어려운가-, 말글생활 제3호, 서울: 말글社, 160-171쪽.
- 노마[野間秀樹](1996a), 현대 한국어의 대우법 체계, 말 제 21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 한국어학당, 15-81쪽.
- 노마[野間秀樹](1996b),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란-일본어 화자의 경우, 語學研究所論集 제1호, 東京: 東京外國語大學 語學研究所, 51-81쪽.
- 노마[野間秀樹](2001),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제11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요지.
- 노마[野間秀樹](2002a),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2002b), 일본어권 한국어 교사의 기본조건, 국어교육연구 제9집,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9-67쪽.
- 노마[野間秀樹](2002c), 한국어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특히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7집,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83-101쪽.
- 노마[野間秀樹](2003), 일본어 모어화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초 학습어휘 선정과 제시 방법, 한국어 교육과 학습사전, 서상규 편, 서울: 한국문화사, 133-157쪽.
- 노마[野間秀樹](2006), 단어가 문장이 될 때: 언어장 이론-형태론에서 통사론으로. 그리고 초 형태통사론으로-. 21세기 형태론 어디로 가는가. 서울: 박이정.
- 노마[野間秀樹]·나카지마[中島仁](2005a),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론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서울: 한국문화사, 263-298쪽.
- 노마[野間秀樹]·나카지마[中島仁](2005b),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론 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서울: 한국문화사, 195-221쪽.
- 李相億 외(1994;2004), 韓國語 I-III, 서울: 한림출판사.
- 최은규 외(2005), 한국어 교육용 TV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육 제16권, 1호,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7-298쪽.
- 현운호 외(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재 위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가사이[梶井陟](1980), 朝鮮語を考ふる, 東京; 龍溪書舍
- 간노[菅野裕臣](1997), 朝鮮語の語基について, 日本語と外國語との對照研究IV 日本語と朝鮮語 下卷, 東京: くろしお出版, 1-21쪽.

- 金珍娥(2002), 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談話ストラテジーとしての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 朝鮮學報 第183輯. 天理: 朝鮮學會, 51-91쪽.
- 金珍娥(2003), 'turn-taking 시스템'에서 'turn-exchanging 시스템'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における談話構造: 初對面二者間の會話を中心に, 朝鮮學報 第187輯, 天理:  
 朝鮮學會, 47-82쪽.
- 金珍娥(2004), 韓国語と日本語のturnの展開から見たあいづち發話, 朝鮮學報 第191輯,  
 天理: 朝鮮學會, 1-28쪽.
- 金珍娥(2006), 日本語と韓国語の談話における文末の構造, 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博  
 士學位論文, 東京: 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
- 노마[野間秀樹](1988), 길: 朝鮮語への道, 東京: 有明學術出版社
- 노마[野間秀樹](2000), 至福の朝鮮語, 東京: 朝日出版社.
- 노마[野間秀樹](2005), 韓國と日本の韓国語研究—現代韓国語の文法研究を中心に. 日  
 本語學. 7월호. Vol.24. no.8. 東京: 明治書院, 16-31쪽.
- 노마[野間秀樹](2006 forthcoming), 現代朝鮮語의丁寧化의 마커“-yo/-iyo”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99·200輯. 天理: 朝鮮學會.
- 노마[野間秀樹]·김진아[金珍娥](2004), Viva! 中級韓国語, 東京: 朝日出版社
- 노마[野間秀樹]·김진아[金珍娥](2005), 大質問館, 2005년 6월호, NHKテレビ アン  
 ニョンハシムニカ ハングル講座,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26-128쪽.
- 노마[野間秀樹]·김진아[金珍娥](2006), 大質問館, 2006년 2월호, NHKテレビ アン  
 ニョンハシムニ카 ハングル講座,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87-93쪽.
- 노마[野間秀樹]·무라타[村田寛]·김진아[金珍娥](2004), ぶち韓国語, 東京: 朝日出版  
 社
- 시부[志部昭平](1992), 日本における朝鮮語研究 1945-1991, 千葉大學人文研究 第21號,  
 千葉: 千葉大學, 291-333쪽.
- 야하기[矢作勝美](1984), 「NHKに朝鮮語講座を」運動の八年, 季刊三千里 38號, 東京:  
 三千里社, 77-83쪽.
- 오무라[大村益夫](1984), 大學における朝鮮語教育의 現狀, 季刊三千里 38號, 東京: 三  
 千里社, 84-99쪽.
- 오에[大江孝男]외(1984-), NHK라디오 안니ョン하시무니카 한글講座, 東京: 日  
 本放送出版協會.
- 오에[大江孝男](1991), 日本における韓国語(朝鮮語)教育, 아시아·아프리카言語文化  
 研究 42, 東京: 東京外國語大學아시아·아프리카言語文化研究所, 137-141쪽.
- 우메다[梅田博之](1987), 日本에 있어서의 韓国語研究, 第1回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  
 集, 인천: 仁荷大學校 韓國學研究所, 333-348쪽.
- 우메다[梅田博之] 외(1984-), NHKテレビ 안니ョン하시무니카 한글講座,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 우에다[植田晃次]외(2006), 朝鮮語教育史人物情報資料集, 2005-2006年度科學研究費報

告書.

유타니[油谷幸利] · 노마[野間秀樹] · 박재수[朴宰秀] · 조희철[曹喜澈] · 오문숙[吳文淑] · 김진아[金珍娥](2002), *ハングル學習の手引き*,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Noma, Hideki(2005) *When Words Form Sentences; Linguistic Field Theory: From Morphology through Morpho-Syntax to Supra-Morpho-Syntax. "Corpus-Based Approaches to Sentence Structures."* Usage-Based Linguistic Informatics 2. Edited by T.Takagaki, et al. John Benjamins. 51-75쪽.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 교수

Graduate School,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11-1 Asahi-cho, Fuchu-shi

Tokyo, 183-8534, JAPAN

+81-42-330-5287

전자우편: noma@tufs.ac.jp

홈페이지: <http://www.tufs.ac.jp/ts/personal/nomahideki/index.shtml>

김진아[金珍娥]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학 전임강사

The Center for Liberal Arts, Meiji Gakuin University

1518, Kamikurata-cho, Totsuka-ku, Yokohama-shi, Kanagawa, 244-8539, JAPAN

전화번호: +81-45-863-2102

전자우편: jina54@gen.meijigakuin.ac.jp

접수일자: 2006. 5. 31

게재결정: 2006. 7. 13



# 한국어 교육

제17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 한국어 교육 제17권 2호

---

2006년 7월 20일 인쇄

2006년 8월 1일 발행

---

發行人 조항록

發行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制作 韓國文化社

서울시 성동구 성수 1가2동 656-1683번지

두앤캔B/D 502호

Tel. (02) 464-7708, 3409-4488

Fax. (02) 499-0846

E-mail: hkm77@korea.com

登錄 제2-1276호

價格 14,000원

---

판권 소유: 국제한국어교육학회